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규칙>: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마음 밝게 내는 것이 바로 인등을 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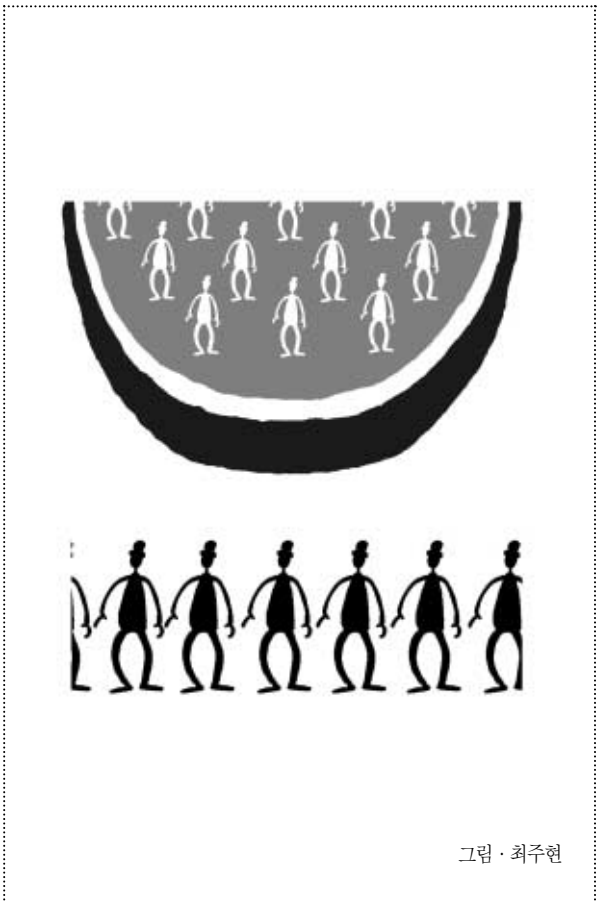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게 된 것이 무척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탓인지 아주 먼 옛날에 같이 앉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먼저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해서 뉴욕으로 갔다가 오하이오, 모건힐, 산호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다니면서 법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바빠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동지가 아닌 반면에 모든 곳이 다 내 동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비누방울과 같이 방울방울들이 한데 모여 떠다니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기에 보기에든 너무 가깝어서 뼈아픈게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한이 없었지만, 한편 그곳 사람들은 참나 생활로서 즐거움과 괴로움, 좋은 것과 나쁜 것, 빠르고 느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초를 닦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한국에 계신 여러분은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공부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신력을 갈려서 조그마한 우리 국토도 지키고, 또는 지구의 주인으로 지구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가 보니, 이번엔 그곳에서 백야 특별법회가 있는 관계로 합창단원들이 가게 된다면 그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생활에 차중하고 있어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거기 외국인들은 무심으로써 정신을 해탈하는데 노력을 더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가 보니 매우 바쁜 생활들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흐뭇했고, 지난번에 가 보았던 룬아일랜드에 지도포교사로 일하는 분이 계신데 폭력과 마약중독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공부하는 길로 인도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또 오하이오 주에서는 주립대학에서 석사나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나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장소를 매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씩 기억나는 것이 법회 하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

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도 진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이 있었으니 초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마음을 밝게 내는 것이 바로 인등을 켜는 것이고, 바로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겠느냐?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리로서 일체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라고 말을 했죠. 그 소리를 들더니 박수를 치면서 모두들 좋아하더군요.

그 다음에는 모건힐지원과 산호세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각각 법회를 하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야코 호텔에서도 미주 모 신문사 샌프란시스코 지사장님의 배려로 법회를 가졌습니다.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히 그곳 경찰국장과 서울과 샌프란시스코와의 자매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분, 미국에서도 불교잡지사로는 유명하다는 종교 신론사 편집국장인 사라 그레이션 씨도 참석을 하였고, 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신문사의 기자들 할 것 없이 많은 대중들이 운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진기한 질문들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의 스님네들은 왜 그렇게 싸움들을 잘 합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화산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돌과 돌이 부딪치면 불이 번쩍 일어나지만 만약에 돌과 돌이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화산이 일어남으로써 연구 자료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개발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송장이나 마음을 일으키지 않지 살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발전이다. 우리 한국 스님네들

은 서로 부딪치는 속에서 번쩍번쩍 일어나는 불 그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발전의 길이니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질문에 꼬리를 물러다가 그만 서로들 쳐다보면서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샌프란시스코 형무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미야코 호텔 법회를 마치고 다음날 신문사 지사장님과 경찰국장의 안내로 형무소 내를 두루 돌아보고 격리 수용 되어 있는 사형수들도 만났습니다. 가슴 아픈 광경도 목격했고, 그들이 경계하는 눈빛을 풀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무언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법회를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그곳 사람들에 비하면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은 그래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다정하게 따뜻한 말 한 마디 제대로 내놓지 않는, 그런 여유 있는 속에서도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러분은 그곳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 공부를 못하

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웃으면서 저렇게라도 공부하려고 노력들을 하니 참 기뻐하고 고맙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 한 이틀 머무르는 동안에 찾아오는 신도님들이 내놓고 간 보시금이 몇만 발 되더군요. 그것을 일전도 남김없이 강당 마련하라고 모두 주었습니다.

나는 늘 얘기하지만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일 뿐, 내가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준 사이도 없고 나 또한 여러분에게 준 사이도 없으니 그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떨어져서 청년들을 주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리저리 애를 쓰고 있는 사진기자가 맘에 걸리는 겁니다. 그가 달라한 건 아니지만 어느 처사한테나 용돈 좀 줄 수 없느냐고 하여 몇천 불 주는 것으로 얼마를 건네주면서 늘 바빠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을 텐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사 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주고 다니, 그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이틀날 법회를 하기 위해 가서 보니 글썽 청년회원들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제작한 프랑카드를 어디다 걸었는지 없으니, 온몸에도 불이고 전부 한 줄

의 끝없는 무한의 능력으로써 당신네들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도리는 모르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잡되고 잡뚫되고, 업이 있고 인과가 있고, 너는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떨어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달리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무조건이'라는 그 한생각만을 돌글게 가지고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건네주면서 늘 바빠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을 텐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사 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주고 다니, 그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이틀날 법회를 하기 위해 가서 보니 글썽 청년회원들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제작한 프랑카드를 어디다 걸었는지 없으니, 온몸에도 불이고 전부 한 줄

의 끝없는 무한의 능력으로써 당신네들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도리는 모르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잡되고 잡뚫되고, 업이 있고 인과가 있고, 너는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떨어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달리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무조건이'라는 그 한생각만을 돌글게 가지고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건네주면서 늘 바빠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을 텐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사 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주고 다니, 그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이틀날 법회를 하기 위해 가서 보니 글썽 청년회원들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제작한 프랑카드를 어디다 걸었는지 없으니, 온몸에도 불이고 전부 한 줄

의 끝없는 무한의 능력으로써 당신네들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도리는 모르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잡되고 잡뚫되고, 업이 있고 인과가 있고, 너는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떨어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달리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무조건이'라는 그 한생각만을 돌글게 가지고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건네주면서 늘 바빠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을 텐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사 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주고 다니, 그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의 끝없는 무한의 능력으로써 당신네들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도리는 모르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잡되고 잡뚫되고, 업이 있고 인과가 있고, 너는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떨어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달리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무조건이'라는 그 한생각만을 돌글게 가지고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건네주면서 늘 바빠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을 텐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사 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주고 다니, 그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의 끝없는 무한의 능력으로써 당신네들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도리는 모르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잡되고 잡뚫되고, 업이 있고 인과가 있고, 너는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떨어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달리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무조건이'라는 그 한생각만을 돌글게 가지고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건네주면서 늘 바빠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을 텐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사 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주고 다니, 그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의 끝없는 무한의 능력으로써 당신네들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도리는 모르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잡되고 잡뚫되고, 업이 있고 인과가 있고, 너는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떨어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달리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무조건이'라는 그 한생각만을 돌글게 가지고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건네주면서 늘 바빠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 나눌 시간도 없을 텐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사 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주고 다니, 그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개운해지더군요.

으므로 바로 인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들의 의식이 모두 인과로 뚫어져서 컴퓨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난 부처님을 믿으러 다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되더라.' 하는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시때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당장은 모르겠더라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니 다시 자기 주인공에 일입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력입니다. 나온 것을 다시 재입력한다면 앞서의 인과나 유전성 세균성 등 모든 고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릇은 비어지니 많게 넣기만 한다면 참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다 탓을 하러가 하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어떻게 배우려고 할 수 있으리까 하는 겁니다. 오온의 진리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고 또 자기로 인해서 상대도 생긴 것이니 무조건 인과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기에 놓아야 합니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근본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살이 돌아가는 이 자체는 내 근본에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삼천대천체계가 그냥 하나로 뚫려 있다는 말입니다. 벽도 없고 붓장도 없이 뚫려 있으니 일입하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진실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노래하듯 '일체 제불의 마음은 내 한 마음이고, 일체제불의 법은 내 한 마음의 법이며 생활'인 것입니다. 따르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르므로 있지 않기에 바로 깊은 법이고 절시는 절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처럼 그 차원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으면서도 돌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 까닭을 알 수 있고, 계단 없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적해주는 겁니다. 돌이 아닌 도리란 안다면 그대로 지혜를 발휘하고, 부처님의 뼈를 얻으면 그대로 골수를 얻을 수 있는 끝없는 길로 사유 사무를 한데 거머쥐고 자유스럽게 인과 바퀴를 다스리면서 나로부터 내 가정·사회·국가를 지키고 위로는 조상님들과 아래로 자기가 뿌려 놓은 씨들을 다 거둘 수 있는 마음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누구나가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의 이 핵심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중에는 우주의 그 모든 것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세계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그때는 모두가 내 벗이내 내 벗이내 없으며, 내 마음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나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어느 한 부분의 기능이 약화됨을 알게 되면 순간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없어도 통신이 되면 저절로 원래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의식 자체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필요한 것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음식들이 체내로 들어오면 사대로 분배되어 저절로 내 몸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로 가족을 얻고 삶을 얻고 뼈를 얻고 또 골수를 얻으려면 스스로 실험하고 체험해야만이 그 참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남의 말만 들지는 절대로 그 진의를 알 수 없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한낱 곁들어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문제만 풀이내면 인으로부터 바깥을 알고, 바깥을 알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면 독 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게 되면 그 독을 굴리면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처님의 골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마음도 돌이 아니고 충상의 마음도 돌이 아니라고 생

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도 진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이 있었으니 초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마음을 밝게 내는 것이 바로 인등을 켜는 것이고, 바로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겠느냐?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리로서 일체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라고 말을 했죠. 그 소리를 들더니 박수를 치면서 모두들 좋아하더군요.

그 다음에는 모건힐지원과 산호세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각각 법회를 하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야코 호텔에서도 미주 모 신문사 샌프란시스코 지사장님의 배려로 법회를 가졌습니다.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히 그곳 경찰국장과 서울과 샌프란시스코와의 자매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분, 미국에서도 불교잡지사로는 유명하다는 종교 신론사 편집국장인 사라 그레이션 씨도 참석을 하였고, 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신문사의 기자들 할 것 없이 많은 대중들이 운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진기한 질문들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의 스님네들은 왜 그렇게 싸움들을 잘 합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화산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돌과 돌이 부딪치면 불이 번쩍 일어나지만 만약에 돌과 돌이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화산이 일어남으로써 연구 자료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개발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송장이나 마음을 일으키지 않지 살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발전이다. 우리 한국 스님네들

## 자유자재한 능력 기르세요

### 시공간 없이 돌아가는 이치 알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당당함 생겨

다면 그런 후회되고 억울한 일인 겁니다. 물론 여래의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려본 몸이 바로 여래의 집이며, 부처님 계신 법당입니다. 어디로 가든 지, 실형 화장실에 간다 해도 자기 집을 지키고 다니니 곧 자기가 운전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차 말씀드릴 것은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참나 참나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거기에 불이고 둘러서지 않아야지 사망으로 헤어진다 한

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나와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 강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가 번역한 뜻으로 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두들 그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무척이나 감개무량했습니다. 반야심경에는 팔만 사천 법문과 끝없는 진리가 포괄해

### 우리 몸이 바로 여래의 집이까

#### 부처님 계신 법당

날 땅에 떨어지고 맑게 됩니다. 무조건 순순해서 같이 돌아간다는 굳은 믿음과 일입하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중용이나 기쁘게 되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주 까마득합니다. 또 일반 신도님들도 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공부 하는 도리는 잘 모르고 자기의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찌합니까. 우선은 급하니가 "이끌어 주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어."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부처님 성품은 체가 없어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다면 부처님

서 들어 있는데, 사유사무의 돌아가는 불바퀴가 그대로 거기에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천천히 읽으면서 참맛을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중용이나 기쁘게 되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주 까마득합니다. 또 일반 신도님들도 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공부 하는 도리는 잘 모르고 자기의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찌합니까. 우선은 급하니가 "이끌어 주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어."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부처님 성품은 체가 없어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다면 부처님

